

그리스도왕 대축일

기도서 481면 (A해)

제1독서 : 에제 34, 11-22, 15-17

제2독서 : 1코린 15, 20-26, 28

복음 : 마 태 25, 31-46

#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환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박진량 신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의 양상은 대개 비슷한 것 같다. 좋은 학교 다니다가 좋은 직장 얻어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보자고 모두들 바쁘게 쫓는다.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다른 집 애들보다 더 훌륭한 자녀를 낳아 키우려고 안간힘을 다 쓰며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겨 사랑으로 왕이 되셨다는 것을 경축하며 기도한다.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로서는 자기가 참으로 남을 섬기며 사는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의 과정을 속 깊이 들여다 보면,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공장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장사꾼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열심히 팔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 물건을 사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 주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자신을 위해 발뚎뚎치면서 이루어 놓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발전되어 간다. 더구나 아무리 성공해도 기껏해야 절판실 년이 지나면, 가진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통이 마저 남에게 남겨주고 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된 운명이라면, 결국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는가! 다른 자연 만물이 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의 삶도 역시 남을 위해 살아가 하느님께 돌아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이타적 삶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외부적 양상이 아니라 그 삶을 밀고 나가는 우리의 내면적 마음(지향)이 문제이다. 사람의 위대한 점은 자유에 있다. 남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 자유로운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의 삶은 위대한 것이 되거나 시시한 것이 되고 만다. 비록 그 삶의 외부적 양상은 비슷해도 내면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신자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고 왕다운 삶이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팔마 주임신부)



## 신호등 이야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낸 것들은 인간을 괴롭히기도 한다. 특히 제도가 그러하다. 그 가운데 힘있는 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나쁜 제도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그 나쁜 제도들을 부수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관심갖기를 꺼려한다. 오히려 쓸데없는 것이라고 나무라기도 한다.

이태리의 어느 한적한 거리에서 교통 신호등 때문에 찢절맨 적이 있다.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내뽐게 치기가 싫어서 꼭 참고 기다렸다. 사람들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에는 빨간불이 켜진 채 차들만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그때 저 아래쪽에서 한 외국인이 길을 건너왔다. 그는 친절하게 신호등을 조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 우선하는 살맛나는 신호등임을 알고 나니 그동안의 쓸쓸함이 싹 가시었다.

요즘은 우리는 전주시청 앞에서 있는 여러개의 신호등을 볼 수 있다. 하도 많아서 정신이 얼떨떨하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임에 틀림없으나 조금은 이상하다. 나쁘게 보면 신호등이 시민들 앞에서 빠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 불쾌하기까지 하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만난다.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는 일인지라 괜찮을런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마르코 2장 27절).

## 숲정이 산책



다스리는 분이 곧 봉사하는 사람



# 겨울 리건창

## 가톨릭 교회의 현실참여

—「해방신학」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현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모든 인간활동의 영역에서 도덕원리와 가치판단에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의 현실참여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 도덕원리와 가치를 가르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참여는 성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복음이었다면 정의실현과 인권옹호에 교회가 앞장설 터인데 복음의 본질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회참여가 빠진 복음선포는 허공에 뱀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지상적이고 공동체적 차원을 떠나서 인간의 구원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사회 퇴척 「노동현장」을 발표하였다. 이 현장은 노동자의 비참함과 착취, 빈부의 극심한 격차를 산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 기본원리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계층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지 않고 기업인을 편중적으로 옹호하며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부의 자세를 지적하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기업주와 정부가 합세해서 억제하고 탄압하던 노조의 필요성과 노동자의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옹호하면서 비참과 착취에서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개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이 현장이 발표된 이후에 20여 개에 달하는 교황의 회칙들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의 생산자인 경제체제, 정치체제, 국제질서를 비판할 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남미에서 시작되어 사회운동이 된 「해방신학」은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해방신학은 교회로 하여금 인간들의 삶의 터전에 깊이 참여하게 하였고, 세계의 부조리를 고발하여 인류의 양심을 일깨웠고 현세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위선을 타파하였다.

우리는 해방신학이 유물론적 맑스주의의 사회분석을 지양할 것과, 교회의 사회교리를 선입견없이 연구 발전시킬 것과 시야를 넓혀서 중남미 이외 지역의 사회현상들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위에서 해방신학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게 되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정의 구현운동은 해방신학이 알려지기 전부터 교회의 사회교리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고도의 정확성과 정밀성에 가끔 인간성을 상실해 가면서 오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불확실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군중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소외감으로 피로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과 소비 속에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은 자연이 만들어 준 여건이라기 보다는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 행동, 그리고 감성으로 인한 부산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게 또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란 무척 힘들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미 경험했거나 공감하고 체질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로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없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성약실(순자, 적어도 저는 이 설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에 의한 인간의 심성이 약화하여 세속적이라 할 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주님의 뜻을 항상 가까이 하기란 그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살아 갔으면 하는 의식 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겁장이며 위선자들이며 주님의 탕아로 분명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고통에 대해서는 지나질 정도로 민감하면서도 정신적인 고통과 고통에는 너무 무관심해 왔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물질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지내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Religion(종교)이란 강요나 유혹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타의적이고 순간적 형식적 상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항구적이며 행동적인 신비로운 생활자체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겨울 속의 나가 아닌 진실한 나를 항상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덕진천주교회>

□ 전주지구 제19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일시: 1984. 12. 2 오후 2시  
장소: 전동천주교회 대상: 각 Pr. 간부

□ 이리지구 제2차 성실하신 정녀 소년  
꾸리아 회의

일시: 1984. 12. 2 오후 2시  
장소: 이리 창인동천주교회 대상: 각 Pr. 간부

미다시·적벽돌·  
내와벽돌·번석벽돌

### 이 화 벽 돌

(구, 왕궁연와)

구, 동양고속 현 환진고속 옆

☎ 4-0621  
야간 6-8287

권 명 자(메레사)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우리포니아)

전문취급점 (수업원)

## K 국 제 보 청 기

전주점: 전주시 경원동 3가 39-6 (대학병원입구 바다다방앞)  
☎ 2-9894

광주점: 광주시 동구 서석1동 52-13(전남공고앞 오거리)  
☎ 27-9940, 9970

주 정 프란치스코 정 세레나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및 구원성년 끝

“하느님은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오늘(25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구원성년이 끝나고 교회의 달력이 끝나는 이번 주간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200주년을 끝내고 300년대를 향하여 받을 내딛게 된다. 모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시대를 맞도록 하자.

## □ 신학교 진학 지원자 피정

사제직을 지망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열렬한 신앙과 사랑을 통하여 조금씩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개인 면담을 하여 굳은 확신을 다짐하는 피정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 제 :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일 시 : 12월 8일~9일 (토요일 오후 4시 접수)
- 장 소 : 가톨릭 센터      회 비 : 3,000원
- 대 상 : 고3·대·일반남자(성소모임 회원 및 신부님 추천자)
- 지참물 : 미사도구·세면도구·필기도구

## 사 제 성 소

인생의 진로를 방향지어야 할 시점에서 청소년 여러분은 장애에 능력있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포용력있는 인간, 자신보다는 은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간... 등으로 성숙할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치를 적시할 때에, 일생을 매걸고 하느님의 영광을 따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제가 될 것을 결심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인격과 의식이 성숙해 갈에 따라 생명력과 활동력이 넘쳐 사회와 문화면에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하는 열의가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제직에 참여시키고자 하시기 때 문입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맞갖은 자질을 갖추어 주게 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도와 주시며, 적당한 성직자들에게 그들을 맡기시어 이 위대한 직무를 바른 지향과 완전한 자유로 청원하는 후보자들을 살피게 하신 후에 그들의 적성이 인정되면 하느님의 공경과 교회봉사를 위하여 그들을 불러 성신의 인장으로 수교인들이 축성하도록 성립하십니다(사제양성 2).

사제성소는 하느님과 인간의 영혼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직책이므로 하느님의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신 업적들을 현대의 음성으로 항상 풀이하며 살아가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사제성소는 교회설립, 세상의 질서유지, 인간성의 발전 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참된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에 인간성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지녀 한 가정, 한 지역은 물론 전 우주의 가족까지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젊은이들을 하느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치있는 일을 신념으로 이룩해 보고 싶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쳐 수많은 신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보려는 결심을 하신 여러분! 당신의 결심은 곧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제성소입니다.

## 요십이(590) 김병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북과도 경제회담

최심사의담이 할 도는안올테...

3당 3인 회의는 전면 진전이없으니

그사람들세비줄 서금내기가 아깝구나!

**남·여 사원모집**  
 모집부문 : 영업직, 판매직  
 00명  
 서류 : 이력서(사진), 주민등록등본 각1통  
 기간 : 12월 10일한 수시접수  
 대우 : 기본급 및 수당  
 ※주부 부업자 환영  
**동진특수화학 전복영업소**  
 전주 태평동 2가 53-19  
 (해성학교 앞)  
 ☎74-9689

**김안과의원**  
 부설 : 국제 콘택트 렌즈

이리시 중앙동 3가 (전북은행 이리지점 앞)  
 원 장 김효열  
 안과전문의  
 TEL. 52-3351  
 전 은 주 (베로니카)

약에 관해서 알고저 할 때  
**전주 시민약국**  
 중앙성당 뒷편  
 ☎ 4-0009 3-3338



(4) **소식**



1. 전주교구 ME팀 부부 임원 및 팀장 워크숍: 25일 오전 9시30분, 장소-센타 3층 회의실
  2. 교구 흥인법원: 26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3. 사무장 연수회: 27일 오후 1시~28일 정오, 장소-센타, 대상-각 본당 사무장 및 사무원 참가비-1인당 7천원(5시 제외본당은 교통비 지급)
  4. 11월 은혜의 밤 및 쉼야기도회: 28일 오후 9시, 장소-전주 효자동성당, 대상-성령세미나 받은 모든 분
  5. 사목방문: 29일-신태인, 부안, 30일-고창
  6. '84 제11차 레지오 연수회: 12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타 회의실 대상-각 꾸리아 및 브레서디움 간부, 참가비-3천원(꾸리아 지원)
  7. 제1지구(전주) 종교생 성가경연대회: 25일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 축! 영령: 성 안드레아 사도(30일)-박 중근·김 태운·박 성팔 신부님

**제1지구 각 본당 소식①**

(중양)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1.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12월1일~2일 오전 9시부터, 장소-성모유치원
  2. 레지오 연총진목회: 12월 8일, 장소-중앙성당
  3. 울뜨레아: 금일 공식미사 후
  4. 11월 시민강좌: 27일 오후 8시, 중앙성당
  5. 성탄반 종합교리: 12월5일~6일 오후 7시30분, 강당
  6. 면접: 7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8일-학생 5시
  7. 유아세례: 30일 어머니미사 후
  8. 사도회: 12월 2일 공식미사 후
  9. 방직거 3회: 금일 오후 2시
  10. 각 신심단체 12월 계획서 제출요
- 지난주 봉헌금: 940,441원 교무금: 1,233,372원

(노송)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흥재

1. 신축기금 심입합시다: 4만원-김경례·송업분, 5만원-김성욱, 6만원-최낙태·김천만, 7만원-정금순, 2만원-이정진, 계-340,000원
2. 구역봉사자 모임: 29일 저녁 8시 빠짐없이 나오세요
3. 공소 판공일정: 12월4일 오전 9시-신원리, 오후2시-왕정리·금상리, 오후5시-진교리, 5일 오전 9시-황유리, 오후 2시-다리리공소
4. 교무금 납부합시다: 개인별 교무금 납부현황을 11월 말 현재로 공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병자판공: 30일 오후 2시부터(성사 준비하세요)
6. 아파트 요셉회 퀵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7. 공소 순회미사: 12월 1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8. 차주전례: 제 3주,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9. 성체유치원 원아모집: 12월 1일부터, 선착순
10. 아파트 주일학교 민속놀이: 12월 1일 오후 2시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한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마리아군단(L.M) 1일 연수회: 오늘 1시30분부터 9시까지(성당에서) ①전단원 빠짐없이 참여바랍니다
  2. ②저녁미사후 「소명」 영화상영, 일반교우들 관람
  3. 28일 저녁-전례·교육분과, 30일저녁-제경·봉사분과
  4. 추계(성탄) 판공검사 실시: 27일부터 시작, 저녁7시~7시30분-대림 영화상영, 7시30분~8시30분-고백 성사, 8시30분~9시-미사
  5. ①사무실에서 미리 「성사표」와 「달력」 받아가세요
  6. ②가정주부·노인들운-오후 2시~4시에 성사 봄
  7. 성사일정: 27일~28일-덕진1~6반까지, 29일~30일-덕진7~13반까지, 12월 4일~5일-덕진14~20반까지, 6일~7일-금암동 전신자, 11일~12일-송천동 전신자, 13일~14일-팔복동·기타반
  8. 주일학교 5~6학년 1일 피정: 12월 1일 오후 3~9시
  9. 금주 분당청소: 12월 1일 오후 2시-주일학교
- 지난주 봉헌금: 212,480원 교무금: 746,5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가정방문: 27일-다가동, 28일-중앙동·교사동·완산동, 29일-대평동 ※시간-오전 9시~오후 5시
3. 자모회: 12월 2일-공식미사 후

4. 은풍기 헌금: 강희술-5만원, 박귀자-2만원, 김금자-5천원, 조정순-5천원, 계-978,000원
  5. 성가대 퀵레회: 30일 오전 11시
  6. 빈첸시오회: 26일 오전 10시
  7.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천 건 ②정운주
  8.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상인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130,990원 교무금: 488,890원  
 특별헌금: 62,830원

(서학)

신부 ①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사도회-12월6일 저녁 7시30분, 자모회-12월4일 오전 10시30분
  2. 성전 보수공사 헌금: 1천원-김정순·이춘재, 1만원-서인순·정성운·김영남·고동춘·이상수·남양순·김옥자·윤순, 3만원-함문권·김순덕, 5천원-김오채·염금옥·고준례, 2천원-김순덕, 2만원-정양동, 5만원-이복남, 누계-7,732,411원
  3. 교무금 미납하신 분 완납바랍니다
  4. 예비자교리: 매주(수) 오전 10시-진반·오후2시-선반, 매주(금) 오후 8시-미반·학생-매주 오후 5시
  5. 차주전례: 해설-신영창·문미옥, 독서-①김상곤 ②한상철, 기도-평화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325,620원 교무금: 325,000원

(소정)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결

1. 사도회 퀵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사목방문: 시간-오후 1시~5시, 7시~9시
  3. 27일-진북2동 8구, 28일-동양아파트, 29일-진북2동 9구, 12월4일-진북2동 10구, 5일-어은골, 6일-금암1구, 7일-금암2구 ※어은골은 오후 1시~5시
  4.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홍성조·송숙자
  5.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박해근·문안주
- 지난주 봉헌금: 239,400원 교무금: 529,3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200주년 기념사업 선금: 10만원-탁병락·소기순·익명, 5만원-빈첸시오B팀, 3만원-박신자·김진필·박영례·김연옥, 2만원-전효석·김봉환, 1만원-이정희·문복수·서정림, 5천원-정운주
  5.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5~6세 남·여 어린이 120명 원서교부-30일 오전 10시부터, 접수-12월1일 10시
  6. 다음주 전례담당
- 아침미사: 해설-이주현, 독서-①최병례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웅,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중만 ②이훈

(호자)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동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구역 판공성사: 오전 10시, 27일-서완산 1구역, 28일-서완산 2구역, 29일-서완산 3구역
  2. 은혜의 밤: 쉼야기도, 28일 저녁 9시~새벽 4시30분
  3. 성모기사회: 12월 1일 오후 1시30분
  4.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후 5시 유아세례: 오늘 10시
- 지난주 봉헌금: 315,285원 교무금: 218,000원